

# 아주경제

[박현주의 아트 Talk]리움에서 개인전 연 양혜규 "나는 코끼리처럼  
예측불허"

12일부터 짚풀로 만든 중간유형등 신작 공개..블라인드등 35 점 전시

박현주 기자 ([hyun@ajunews.com](mailto:hyun@ajunews.com)) | 등록 : 2015-02-09 18:06 | 수정 : 2015-02-10 00:19



[설치작가 양혜규가 리움미술관에서 작품설명을 듣고 있는 기자들을 쏘아보듯 바라보고 있다.사진=박현주기자]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나는 코끼리처럼 예측불허다. 풀을 뜯고 먹을때는 귀엽지만, 어느 순간 발로 사람을 밟을수도 있고, 폭력적이기도 하지않은가. 나도 (어떤일에는)무심하지만 핵 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서울과 베를린을 오가며 작업하는 설치작가 양혜규(44)는 도발적이었다.

9일 서울 이태원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만난 작가는 '검은 에너지'가 질게 발산됐다. 검은 색의 뱅헤어, 검은 부츠, 온통 '검은 패션'으로 휘감은 양혜규는 당겨진 흰 활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전달됐다. "자연은 무심하면서도 무자비하다"고 말하는 작가는 동안의 얼굴을 했지만, 어느 순간 나이든 여자처럼 보이기도 했다. 또 자신의 작업을 설명할때 예민해지기도 해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의 발톱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실제로 공격성을 보였다. 리움에서 전시를 하게된 소감을 물어보려 어떻게 전시하게됐는지를 묻자 "그건 리움에 물어봐라, 나도 궁금하다"고 반문했고, 밥먹으면서 인터뷰를 이어가자고 하자, "밥먹을 사람은 밥을 먹으러가고 나랑 여기서 이야기할 사람은 계속 이야기하자"거나, 베를린과 서울, 어디가 마음에 드냐는 질문엔 "내가 어떻게 보이냐"며 따지듯 물었고,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우선 하고싶어했다.

질문에 대한 답은 길었다. "자신은 이기적"이라며 고집과 주장이 센 면모를 숨기지 않았다.

양혜규는 "내가 하는 일은 작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하고 싶고 일을 통해 성장하고 싶다"며 "나에 대해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보였다.

또한 "어렵다. 모르겠다는 그 궁금증을 바탕으로 살갑게 이해하고 진정한 호기심으로 앞으로 나의 활동을 봐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작품을 보고 많은 질문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부탁도했다.

해외에서 유명세를 탄 만큼, 국내에서 그의 작품을 보기는 쉽지 않았다. 해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등에서 전시가 이어졌지만 이번 전시는 5년만에 열리는 국내 전시다.

리움이 2015년 새해 첫 전시로 선정한 양혜규 개인전은 '양혜규의 파워'를 증명한다. 리움이 2004년 개관 이후 국내 생존작가 개인전을 마련해준 것은 2012년 서도호 전 이후 두 번째다. 이미 4~5년전 기획한 이 전시는 리움이 "서도호 이후 한국 작가로는 가장 발전

가능성 있는 작가로 주목했기 때문"이라는 설명.

거침없는 자신감이 원동력일까. 젊은작가(작가는 이렇게 규정하는걸 싫어했다)치고 전시 이력이 화려하다. 21년 전 독일로 유학을 떠났던 그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2009), 독일 카셀 도큐멘타(2012), 스위스 아트바젤 언리미티드(2014)뿐 아니라 전 세계 유수 미술관과 아트페어에 초대됐고 2008년 독일 카피탈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미디어 설치작가에 이불작가와 함께 포함됐다. 또 2014년에는 아트팩트넷이 선정한 '세계 300위 이내 작가'에 고 백남준, 김수자 작가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삼성미술관 리움 홍라영 총괄부관장은 "그동안 국내에서 양혜규의 예술을 살펴보는 기회가 적었다. 5년만에 열리는 양혜규의 이번 전시가 일반 관객들과 어떻게 소통하게될지 자못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전적으로 작가가 직접 설치하고 꾸몄다. 작가의 작업을 존중한다"는 홍 부관장의 말에 양혜규는 "전시는 중매결혼"이라며 "전시장측에서 먼저 사랑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 싶었다. 작가는 계산적인 여자 입장"이라며 당당함을 보였다. "작가는 우주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국내에서 전시하고픈 공간이 많지 않은데 "리움 미술관쯤은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코끼리를 쏘다 상(象) 코끼리를 생각하다'란 제목으로 열리는 전시는 2001년 이후 발표한 대작부터 새로운 작업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작 등 35점으로 꾸몄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회복이 전체를 아우른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제목과 달리 전시장에 코끼리는 없다. '코끼리'는 양혜규에게 자연과 인간 본성의 존엄함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코끼리라는 소재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1903~1950)의 수필 '코끼리를 쏘다'와 프랑스 소설가 로맹 가리(1914~1980)의 소설 '하늘의 뿌리'에서 가져왔다. '코끼리'는 자연 생태계를 의미하고 자연으로부터 괴리된 인간 윤리를 호소하는 매개와 같은 존재다.



[전시작품을 풀지 않은 듯한 전시장. 2004년 제작한 창고피스와 짚풀로 엮어만든 중간유형등이 전시장 1층에 특특 놓여있다. 사진=박현주기자]

지하 1층 그라운드 전시장은 민속 박물관같은 분위기다. 짚으로 만든 작품이 들어찼다. 고대 마야의 피라미드, 인도네시아의 불교 유적 보로부두르, '피어나는 튜립'이라 불리는 러시아의 이슬람 사원 라라 툄판을 참조한 건축적 구조물 세 점과 인체를 연상하는 개별 조각 여섯 점이다. '중간 유형'이란 제목으로 설치한 이 작품들은 양혜규가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신작이다. 인간의 신념이나 종교의 허위와 나약함을 보여 준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일본 가나자와의 어느 공원에서 짚풀로 공들여 감싼 큰 나무들이 서있는 조형물처럼 서있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양혜규는 짚풀에서 문화인류학적 맥락을 발견했다고 한다. 기계화되고 산업화된 오늘날에도 원시 -농경사회의 재료인 짚풀이라는 재료와 인류의 수공이 문명과 역사를 가로지르며 편재하는 동시에 각 문명에 따라 상이하게 토착화되어 발현되어 왔다는 점을 발견한 것. 인조짚을 일일이 엮어만든 신작 '중간유형'은 보편성과 개별성 유사함과 상이함이 공존하는 짚풀공예의 혼성적 속성을 담았다.

작품은 대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거대한 짚풀 건축물에 이어 이게 전시된 것 인가 할 정도로 널려져 있는 의자들과 책상(VIP 학생회) 작품, 맥주 박스 등을 네 개의 운반용 나무 팔레트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2004년 작 '창고 피스' 작품이 특특 놓인채 관객을 맞이한다.

이런 작품이 팔릴까? 의문이 가시기전에 창고에 대충 쌓아놓은 것 같은 '창고 피스'는 팔린 작품이라고했다. 작가로서 절박할때, 안팔린 재고가 쌓여있을때 빛처럼 나타난 독일 컬

렉터가 구입했다고 한다. 전 세계 작가들의 독특한 작품만을 소장하는 컬렉터라고한다. '창고 피스'는 그 소장가에게 빌려와 전시했다.

리움 블랙박스에는 양혜규의 대표작인 블라인드 작품이 설치됐다. 그 옆엔 바우하우스 무대실험을 패러디한 낫쇠 방울을 주재료로 한 '소리나는 인물'등 금빛의 캐릭터들이 춤을 추듯한 형상으로 걸려있다.



[블랙박스에 설치된 방울을 주재료로한 '상자에 가둔 발레', '소리나는 인물'등이 춤추듯 설치됐다. 사진=박현주 기자]

서구 모더니티의 역효과, 세계화에 따른 문화적 평준화의 모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부으며 우리 사회에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은 단순하면서도 무거운 작품이다.

"가벼운 시대, 머리쓰는 일도 필요하지 않냐"는 작가는 "하나의 주제가 아니고 매우 큰 얘기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전시는 만용이라면 만용이고 용기라면 용기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고, 앞으로 추적해보고 싶은 주제였기에 시작해봤다"고 고백했다.

토텐과 같은 원시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이번 전시는 단편적으로만 이해했던 양혜규의 무한한 사고방식을 엿볼수 있다.

'코끼리' 상'象'자를 그림처럼 형상화해 시작한 종잡을수 없고 혼란스럽기짝이 없는 작업은 전시를 모두 둘러보고 멀리서 봤을때 진가를 발휘한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의 반란을 위대하게 일궈낸 난삽한 작품들은 수많은 나라를 오가는 '노마드족'인 양혜규 스스로가 그리고 있는 코끼리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낄수 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건축물(종교를 초월한 사원등)들을 한데 모아놓은 전시장안쪽은, 이미 인간의 인지능력으로는 형용할수 없는 자연의 거대함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경이롭고도 웅장함을 끌어안고 있는 전시장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거대함'의 코끼리가 아닐까?.

쉽게 와닿지는 않고 어떤 장르에도 포함되지 않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작품이지만 작가의 부탁처럼 "살갑게 호기심을 가지고" 봐야할 전시다.

리움미술관은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위해 무료 전시강연회를 연다. 오는 14일 오후 2시 태현선 큐레이터와 도록에 서문을 쓴 김성원교수가, 오는 3월 21일에는 양혜규 작가가 직접 작품설명을 할 예정이다. 관람료 일반 7000원. 전시는 5월 10일까지. (02)2014~6901



[리움미술관이 12일부터 여는 설치작가 양혜규의 개인전 입구. 전시제목인 '코끼리를 쏘다, 象 코끼리를 생각하다'중 코끼리 뺨을 보고 '象'자를 그림처럼 형상화해 벽에 붙였다. 양혜규전을 기획한 리움미술관 태현선 큐레이터가 양혜규의 전시를 이해하는 키워드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현주기자]

---

URL: <http://www.ajunews.com/view/20150209163614600>